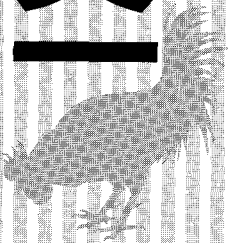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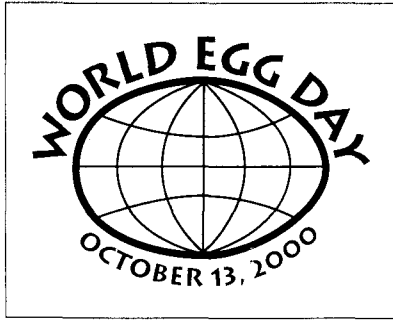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세계

제2회 계란의 날, 오는 10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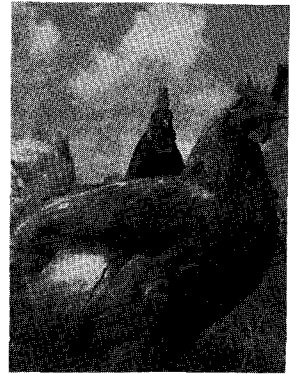
제2회 계란의 날이 오는 10월 13일로 다가왔다. 국제계란협회(IEC)가 지난해부터 매년 10월 둘째주 금요일을 계란의날로 선포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며, 계란의날은 안전한 계란생산은 물론 계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계란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되었다.

지난해에 국제계란협회는 가맹국들에게 12가지의 계란우수성을 알리면서 홍보활동을 벌인 바 있으며 금년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WP)

미국

닭 몸속에 부착된 무선 센서

닭의 몸속에 삽입된 센서가 체온을 감시하여 무선으로 닭장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미국의 조지아대학의 타코이 햄리타 박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햄리타 박사팀은 닭의 생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닭의 가슴에 작은 송신장치가 달린 센서를 삽입하여 닭의 체온을 측정, 스마트 컴퓨터로 이 정보를 전달한다. 만약 닭의 체온이 올라가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사내의 냉각시스템을 작동하여 고온 스트레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특히, 여름철 고온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C&T)



네덜란드

양계농가 HACCP 도입 박차

네덜란드는 그 동안 도계장 및 사료회사에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를 도입, 운영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에 닭고기와 계란이 식품으로써 안전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양계농가 자체적으로도 HACCP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양계농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사료회사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방역체계를 세우고, 소비자들에게도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WP)

중 동

계란생산비 개당 77원

중동지역의 채란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7년 1인당 계란소비량 평균이 불과 70개이던 것이 오는 2010년에는 92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근 조사된 중동지역의 생산비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개당 77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만5천수 계군을 샘플로 조사한 것으로 산란지수는 평균 160개를 적용시킨 것이다.

가장 생산량이 많은 나라는 모로코로 나타났다으며,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201개를 먹는 요르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WP)

표. 중동의 계란생산비 내역

항 목	품목별 비용 (미화\$)	개당 생산비 (원)	비율(%)
초 생 추 대	13,750	28	3.48
육 성 비	1,000	0.3	0.25
전 기 료	2,205	0.5	0.57
운 송 비	8,800	0.8	2.23
단 열 비	1,465	0.4	0.37
사 료 비	291,341	57	73.80
약품, 방역비	14,700	2.9	3.72
노 동 비	38,000	7.6	9.62
감 가 상 각	16,250	3.2	4.12
유 지 비	7,250	1.5	1.84
계	394,761	77	100
총 계란생산량	23,500 × 260 = 6,110,000개		

폴란드

계란시장 회복 국면

호주도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 일고 있는 폴란드의 계란시장이 정상화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폴란드의 채란산업은 가격이 생산비보다 35%나 낮은 가격이 장기간 형성되면서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평년에는 50억개정도의 계란이 적정수자로 기록되어오다 1998년에는 73억개로 증가하였고, 지난해는 80억 개까지 과잉생산이 되면서 수출량 감소 등 계란시장이 엉망이 되었다. 더욱이 1인당 계란소비량도 180개로 낮게 형성되면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비가 증가, 가공산업 주력에 발맞추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계란시장이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I)